

## 불교문화연구소 국제학술대회

### 환영사

불교인문학의 세계적인 석학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전 대미문의 COVID-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해주신 것에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인류는 글로벌 역병과 기후 온난화 등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방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인류문명에 대한 이러한 도전을 계기로 우리는 협력과 공존의 문제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대정신’이 무엇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緣起法을 통해 온 세상은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연기법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천명하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어느 시대든 위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역사는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를 방치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했던 불교의 시대정신을 COVID-19의 시기에 다시 조망해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불교도들의 시대 인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학술대회는 이러한 불교의 시대정신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담론의 장입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주시는 4분의 국제 권위자 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나와 他者 간의 구분을 넘어 상호 협력하고 공존하는 불교의 국가관을 되새겨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서로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3일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합장